

[나의 초보 양육기 6]

“동반자와 성격이 안맞아요? 문제없어요”

정은영 자매 / 2002 / 페이지 수: 2

초보 양육기를 부탁받았을 때는 맘이 무거웠다. 왜냐하면 처음 양육했던 동반자와 안타깝게 중도하차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은 점과 내 자신의 확신없는 신앙과 모난 성격탓이었다.

불확신 때문에 중도하차

모태신앙으로서 성장한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대일 동반자 과정하면서 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도 덩달아 고민에 빠졌다. 막상 양육을 할 때 왠지 자신감있게 선포하기가 이상했다. 그러다 첫 번째 양육은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이 일이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나의 믿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였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의 주제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체험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전부터 다시 양육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동반자였던 자매와는 성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 뜨뜨미지근한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켜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한다.

깊은 교제와 귀한 추억

나도 뜨뜨미지근한 믿음, 날나리 크리스천이었다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많이 변했다. 우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편해졌다는 말을 듣는다. 아직은 좀 더 많이 변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지만 말이다.

때문에 동반하는 자매와는 잘 맞았다. 좀 더 성숙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자고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자매라 그런지 몰라도 참 잘 먹으러 다녔다. 종류별로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살아가자는 확신과 격려를 서로 나누었다. 1년을 넘게 교제를 나누었다. 성경공부는 못해도 잠시라도 꼬옥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 주님과 교제를 위한 추억과 경험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된다.

지금 세 번째의 양육은 참 귀한 자매들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자매들이다. 이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 어떻게 보면 연단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서로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평생 기도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

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일대일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있다. 영성의 깊이가 동반자가 더 높다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된다.

솔직히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어서 쉬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서 양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위로받는다. 아직은 어리고, 초보라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반자에게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발 한발 인도하시는 것을 매순간 느낄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